

〈傅雷家書〉를 통해서 본 家庭教育(觀)

The Home Education through Pu-lei's letters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부
교 수 지 영 속

School of Human Life Sciences, Sungkyunkwan Univ.

Professor: Young Sook, Chi.

〈목 차〉

- | | |
|--------------------------------|--------------------|
| I. 연구 목적 | IV. 〈부퇴가서〉의 분석 |
| II. 〈부퇴가서〉의 사회 문화적
가치체계의 탐색 | V. 결론 및 시사
참고문헌 |
| III. 부퇴의 가정환경 | |

〈Abstract〉

Pu-lei is a well-known translator in Chinese literature. He had delivered his experience, knowledge and paternal love to his son who was studying abroad, by hundreds of letters from 1954 to 1966.

These letters are appreciated as the perfect expression for paternal love and concerns.

Although he had experienced both cultures of the West and the East, his lessons for son are rooted in the oriental 'spirit training'. What he emphasized in his letters is that one should put sound personality first than merely enhancing abilities. Especially, he valued the recreation from meditation and living up to one's belief. Furthermore, he had taught his son to observe the properties, to manage time, and pride of his country and patriotism.

The modern family education has overlooked the enhancement of human nature. The egoistic and jaundiced parental love and over-protectiveness led the disorder and the absence of morality today.

In this point, the lessons from Pu-lei's letter will give us important suggestions.

I. 연구 목적

가정교육은 가족성원간의 전면적인 인간관계 특히 부모의 생활철학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뿐 아니라 가정생활 속에서 무의도된 자연스런 전이에 의한 교육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그 어떤 유형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영향력을 갖는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가정에서 출생하여 독립의 그 날까지 생물학적 발달과 보호는 물론 언어, 습관, 간단한 생활기능 뿐 아니라 그의 일생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 생활태도, 생활규범, 역할의식, 자존감 등 인간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아간다. 이때 가정은 가장 영향력 있는 일차적 환경이 되고 구심점이 되며, 부모의 교육은 이의 기초가 되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그러나 현대 가정은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식의 출발이다. 돌이켜보면 지식편중의 교육경향에 몰두해 온 지도 오래되었고, 근년에 이르러서는 조기유학의 물결 속에서 가치의 혼돈과 갈등, 무질서의 위기를 표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 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장래 자녀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가지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진정으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도 불변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또 글로벌시대의 보편적 가치는 무엇인지, 등 가치관의 동요 속에서 부모 스스로가 어떤 신념을 갖기도 어렵다.

현대 가정의 모습은 바람직한 인성교육의 장이라기 보다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승리자를 육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 버렸고, 가족 이기주의적인 편협한 애정과 과잉 보호 속에서 이기적인 교육 열로 치닫게 되면서 그 후유증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를 당혹하게 하는 것은 물질적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인간성 상실이 빚어내

는 정신적 황폐에 대해서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대안들이 잘 찾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야 할 시대의 정신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국제화 세계화시대에도 변함없는 보편성과 함께 민족고유의 정체성을 조화시키는 정신일 것이다. “생각을 재정비”하여 기초적인 일에서부터 실천하는 지혜가 진정 아쉬운 때이다.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부뢰가서(傅雷家書)>는 저자 부뢰(傅雷 1908~1966)가 그의 아들 부총(傅聰 1934~)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 인간 됨을 향한 경험과 지식과 감동적인 사랑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전해준 편지모음이다.¹⁾ 이 편지모음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부성애의 가장 완벽한 구현이라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유영하 옮김: 2001)

아버지 부뢰는 중국의 번역문화가 겸 예술사가로서 1928년 프랑스 유학 후 중국에 돌아와 미술사와 프랑스어를 강의하였고 프랑스문학 작품의 번역과 미술사 연구를 한 사람이다. 아들 부총은 어려서부터 문학과 서양고전 음악을 교육받았고, 1954년부터 폴란드와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부모로부터 엄격하고 적극적인 인간 삶의 교육을 받았다. 그는 피아니스트로서 중국인 특유의 동양적 운치와 분위기 있는 연주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그들이 살았던 시대 상황에서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편지의 내용 대부분이 인간 됨을 향한 가르침과 무엇보다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 “생각을 통한 재창조”를 교육의 최대과제로 삼고 있으며, 그 생각과 행동을 일치하기 위한 실천, 그리고 결과보다 그 과정을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인식하려는 것, 자신의 감성을 조절하기 위한 방법 등, 부모로써 어떤 원칙을 가지고 신념 있게 적용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오늘의 무원칙이 난무하고 무질서와 자기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가정교육 내지

1) 1954~1966기간동안 300여 통의 편지 중에 110통의 내용이 수록된 것이며, <상하이에서 부치는 편지(유영하 옮김)>에 의존하여 분석 연구하였음.

인간 삶의 지침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그 내용을 재음미하여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II. 〈傅雷家書〉의 사회 문화적 배경으로서의 가치체계 탐색

부뢰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 왜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쳤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이념을 이해하고 또 그에 영향하는 그 나라와 국민의 정신세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작가 부뢰의 사고체계에 접근해 보기 위해서 우선 중국이라는 나라의 문화적 동질성과 민족적 특수성을 배경으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서 부뢰(1908~1966)와 동시대를 살았고 중국과 서양의 문화를 함께 경험한 지식인이며, 세계적인 석학 임어당(林語堂, 1895~1976)의 〈My country and My people〉²⁾에서 그 특징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임어당은 이 책 속에서 중국인의 주관적 입장과 서구의 문화를 섭렵한 지식인의 객관적 입장을 가지고 중국의 정신문화와 생활양식, 사회제도와 역사문제 등을 예리하게 분석해 놓고 있다(신혜진 역, 1995). 부뢰 또한 일찍이 프랑스에 유학하여 중국의 전통 사상과 유럽의 문화적 감수성을 함께 가지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사회·문화적 배경에 유사한 점이 많다고 보여진다.

누구나 개인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 나라와 국민적 성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삶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인의 정신과 능력의 반은 제도적인 면과 문화적 측면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그 가운데 가족제도는 잘 짜여져 있어서 가족적 정신으로부터 사회적 행위에 대한 법규가 생겨나고 가정에서의 도덕적 훈련을 일 반적인 도덕적 훈련의 기초로 삼고 있다.(pp 35~37)

가정에서 부모는 인간과 인간사이의 사회적 의무 상호조화의 필요성, 적당하게 조절하는 자제, 예절, 부모에 대한 의무나 감사, 어른에 대한 존경심 등을 최초의 교훈으로서 자식에게 가르쳤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생존해 가는 방법이고 한 집안의 영속이라는 관념을 심어줌으로써 그 가치는 거의 종교에 가까운 구실을 하였다. 때문에 어려서는 자녀를 근엄하게 길러주고 성장하면서는 자기 분수를 알게끔 해준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러한 훈련으로부터 서로 행복하게 조화롭게 살수 있는 사회를 이루도록 피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효경의 뜻이기도 하다. (pp 218~221)

유교의 원리는 가족제도 뒤에 숨어 있는 사회철학으로서 사회질서에 기여하는 원리로 “모든 것을 제 자리에”, “모든 사람은 제 분수를 지키게” 자기 위치에서의 처신과 행동을 알게 깨우치는 것. — 五倫에서 4가지가 가족에 관한 것에서도 가족은 도덕적 행동의 출발점임을 알 수 있다. 그 반면에 서양인들에서 덕목이 되었던 패기, 열망, 공공정신, 모험심, 영웅적 용기 등은 중국인들에게는 별로 강조되지 않았다.(pp 65~66)

또 하나 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의식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문화이다.

역사적으로 중국의 생활양식을 창조해 낸 사람들의 그 사상적 근원은 도교사상에서 자연스럽게 우려나온 시적 감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 문명과의 균형 속에서 소박한 생활을 사랑하고, 얽매이지 않는 삶에서 위안을 찾으며, 전해 내려오는 시가와 회화·문학이 자연을 가까이 함으로서 몸과 마음을 건전하게 한다는 전원생활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중국인의 정신은 하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땅을 품으려는 것이며, 이 땅위에서 조화와 행복을 얻으려는 지극히 현실적이다.

중국인은 도교적 심성에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두통과 상심을 치료해 준다고 보았다. 시와 자연승배는 불안과 혼란의 시대에 정신적 위안이고 마음의 피난처를 제공해 주었고 도교의 시는 유교의 엄격한 생활규범을 견디어 내는 돌파구가 되었으며 사람의

2) 〈My country and My people〉은 임어당 특유의 해학적 필치가 돋보이는 문명비평서로 불리우며, 신혜진 역 〈중국, 중국인〉으로 출판됨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위로를 주는 것도 근본적으로 도교사상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pp 62~65 ; pp 139~141)

도교는 유교의 실증주의에 반대되는 철학으로 유교의 불완전함에 대비한 안전핀과 같은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유교의 인생관이 적극적이라면 도교의 인생관은 소극적이고 이 두 요소가 혼합하여 나온 것이 중국인의 성격이라 하였다. (pp 61~62)

중국인들은 성격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해서 교육이나 인간성의 이상적인 형태로 성격(character)을 강조하며 모든 철학이 이상적인 성격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성격은 자신과 남을 잘 이해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원숙한 인간의 성품을 일컫는다." 그래서 이상으로 삼아온 성격으로 오래 적용되어온 특징은 지족(知足), 인내, 온건함과 같은 성격이 생겨나고, 이러한 성격의 힘은 곧 유교철학에서 보면 이성의 힘이다. 즉 정신을 수련하여 덕을 향상시켰을 때 인격이 연마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원만한 성격은 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산물이고 전통적 가치와 오래된 민족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로부터의 또다른 특징은 "참을성"과 "무관심"을 들 수 있다. "참을성"은 인구과잉과 경제적 압박 속에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으로 참을성은 아주 훌륭하고 도덕적인 것으로 의식적으로 가르쳐 온 지침이다.

"조그만 고생을 참지 못하는 자는 큰 일을 이룰 수 없다.(小不忍則難大謀.)"

이 참을성이라는 덕을 키워주는 곳이 대가족이다. 한 개인을 위한 여유보다는 필연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대인 관계에서 서로 참고 조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을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한 인간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조화된 사회 관계에서만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원칙 위에서 참을성은 생존을 위한 최고의 덕으로 간주되었고 가르쳐졌다.(pp 45~87)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것은 개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인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회에서 생겨난 삶의 안전 방편의 하나가 "무관심"이라는 문화적 소산이다.

중국 어머니들은 "세상일에 뛰어들지 말아라" 라고 가르친다. 특히 젊은이보다 나이가 들면서는 원만한 성격에 무관심한 태도를 자연스럽게 받아 익숙해짐으로써 자신들에게 이롭다는 것을 생존적 가치로서 인정하고, 스스로 현명해지려고 한다. 아마도 이런 성격 때문에 노희(老耄)의 정신이 생기는 것 같다.(pp 57~59)

또한 중국인들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성품을 찬양한다. 이것은 중용(中庸)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이며, 긍정적 의식을 갖게 한다. 행운이 왔을 때 그것을 모두 즐기지 말아라. 보다 적은 행복을 택하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다(知足者富)를 즐겨 표현하고, 매일의 삶에서 평화롭게, 순고하게 인내하며 분별 있는 상식, 즐거운 마음, 등글등글한 성품, 세상사에 관한 지식과 학문 숭상, 실질적인 가치와 직결된 현명한 판단,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의 우월성을 존중한다.(pp 69~71)

도교 사상의 영향은 인간의 생활이란 최소의 투쟁과 최소의 반항에 의해 진행된다고 배움으로써 이들은 모욕을 참아 넘길 수도 있고, 자신을 세계와 조화시켜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도교적 신념과 무관심은 수동성에서 오는 장점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로운 방어술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중국인 특유의 가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도교는 유교가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중국인 성격의 다른 일면을 채워준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도교는 유교보다 더 민중적인 철학으로 받아들여지고, 노자(老子)의 자연주의 철학이 백성의 마음속에 영혼의 세계를 형성하는 자연스런 마음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pp 140~141)

더불어 중국인의 유교적 중심교의로서 <중용(中庸)>을 배놓을 수가 없다. 중국의 고전적인 교육의 목적은 문화의 모범으로서 도리를 아는 인간을 만드는데 있다.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은 중용과 극기를 사랑하고, 추상적인 이론이나 극단적 논리보다 상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중용의 정신은 항상 마음의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한다고 믿는다. 그 예로 절제는 중화(中和)이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며, 자제(自制)는 계(戒)이고 "적당하게

조절한다”는 뜻이다. 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기에 자기 나라를 중화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한다. (pp 131~133)

이러한 중용의 사상은 모든 것을 포함하므로 양극 화하는 모든 이론을 약하게 하고, 온갖 종교를 무력하게 하기도 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정신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인에게는 유교의 엄격한 생활 규범으로 내면을 무장하려는 노력이 있는 한편으로 뿌리깊은 도교적 심성과 중용의 가르침 속에서 중국인의 가치 체계가 특징 지워 진다고 할 수 있겠다.

III. 傅雷의 家庭環境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버지 부되는 인생에서 터득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고스란히 전해주고자 하였다. 또 간간히 어머니의 자상한 모성애를 담은 글에서 부와 모의 굳건한 동반자 관계와 자식에 대한 감사와 지지를 전함으로써 정신적으로 함께 하는 안정된 가정 환경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볼 수 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지만 자식을 통하여 인내와 감정의 승화를 배울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솔직하게 전한다.

“우리는 너를 항상 지켜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천사가 되고 싶다.”

“부모의 편지를 잘 간수했다가 외로울 때 펼쳐보아라. 너의 근심, 너의 즐거움을 함께 하련다.”

“부모로서의 강한 책임감 때문에 지나치게 엄격하고 간섭하게 됨을 이해하여주면 좋겠다. — 아버로서 자식을 너무 낮게 평가하였음도 솔직히 시인하지만 그것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주고 싶은 마음뿐이므로 엄격하게 교육한데 대한 긍정적 이해를 구하고 있다. 그것은 자칫 과대평가로 인하여 방자하거나 응석받이가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다.”

“심리적 고민을 숨기지 말고, 두려워 말고, (글로써)부모에게 털어놓으면 마음이 후련해 질 수도 있고, 자기반성이 될 수도 있으니 부모의 걱정이나 꾸지람을 미리 겁내지 말고 정신적으로 함께 하는 따

뜻한 마음과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바란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특히 예술가적 기질로 긴장이 많고 신경이 예민해 질 수 있음이 걱정되지만 어머니를 닮은 너의 선량함, 온후함, 너그러움을 장점으로 하여 마음의 평형을 지켜주는 것이 자신과 가정의 평안을 가져온다고 하여 어머니의 성품을 우회적으로 고맙게 전달하고 있다.”

또한 어머니는 자식에게 칭찬을 아낌없이 전하여 민족에 대한 자긍심, 조국과 일에 대한 사랑과 열정, 엄숙함, 일 처리 방법에 이르기까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심정을 전함과 동시에 아버지를 더 잘 이해하려는 마음,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일, 병약해진 아버지를 위로하는 일 등 부자관계를 간접적으로 돈독히 하려는 부부의 사랑과 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아들을 길러 노년을 대비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 보답에 앞서 자식을 기르고 교육시키는 일은 자식의 희망을 우리(부모)의 책임과 기쁨으로 여기며 도와주는 것이라는 신념을 토로하고 있기에 근면과 성실을 몸소 실천하고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일에 모범이 되고자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IV. 〈傅雷家書〉의 분석

부되는 편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가르침들이 대단히 진지하고 성실하게 사랑을 담아 교감할 수 있게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인간성 함양을 위해서는 끝까지 동양적 사고의 틀을 유지한 아버지였다고 생각된다.

오늘날 우리는 국제화라는 구호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기가 어려운 반면, 세계적 보편성을 외면한 채 고립주의적 특수성만을 고집할 수도 없는 정신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 무엇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지? 어떤 가치체계가 바람직한 것인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인지? 한 가정의 부모로서 진정 자녀를 위해 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신이 없는 것 같다. 이 시점에서 다음의 내용들은 한 가닥 빛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분류, 재정리하였다.

우선 그는 자신이 인생에서 터득한 모든 경험과

지식을 솔직히 전해줌으로써 한 가정의 부모로서 해야 할 일에 충실하려 애썼다는 것이다. 그 바탕으로서 자신의 가정에 대한 신뢰와 부부 그리고 부모 자녀간의 안정된 정서관계를 느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며 항상 지켜주는 따뜻한 마음을 생생하게 표현 전달함으로써 안정감을 주고 있다. 특히 그는 청소년기의 인격적, 전면적 발달은 가정교육과 집안의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또한 강조하고 있음을 III장에서 서술한바 있다.

그러한 환경의 바탕 위에서 의도된 가르침은 몇 가지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은 “인간성 함양을 위한 교육이다.” 특히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 다시 표현하면 가치관 교육이었고 생각을 통한 재창조를 최대 과제로 삼고 그에 경솔함이 없이 행동으로 실천함을 강조한다. 다음은 “예절과 관련한 교육”, “시간사용에 대한 교육”, “민족성과 조국애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자식의 학문적 성취와 발전을 위한 전문적 조언(본고에서 제외)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 “인간성 함양”을 위한 가르침들:

- 학문을 하던 예술을 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고, 먼저 사람이 되는 것을 배워야만 훗날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법이다.
- 자기 자신과 싸워 나가는 것은 (절제) 긴장이 아니라 긴장을 풀어 나가는 방법이다.
- 인생 문제와 우주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을 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다.
- 대 자연 속에서 개인의 미세한 존재임을 알면 긴장이 덜하므로 조용히 좋아하는 시(글)를 음미해 보는 것이 어떨까.
- 고전은 자주 읽도록 하면 정신적 비료가 되고 영감을 개발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예. <世設新語> - 명사들의 언행 에피소드를 기록한 책)
- 赤子之心(거짓 없는 마음)을 항상 기억하고, 깨끗한 정신을 지켜나가다 보면 두려움도 고독도 이겨 나갈 수 있는 법이다.
- 완벽함이란 없는 것이다.- 그것을 향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 ‘솔직함’은 평생 간직해야할 생명과 같은 것이다.
- 공부하는데는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조급해 하지 말라(특히 감성적인 면이 강한 자식에게 부족한 의지를 심어주고자 하는 당부임)
- 재주 있다는 사람은 자만하기 쉬우므로 내실을 다지고 자신을 점점 함이 필요하다.
- 사회와 유리되지 않는 자기변화가 있어야 한다.
- 젊은이들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 - “배은망덕” 하지 않도록 하라.
- 진실, 겸허한 마음, 자기 아집을 버리고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꾸준히 길러져야 하는 것이다.
- 예술가는 먼저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배워야 하고 진실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사람됨의 중요한 것이니 명심하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 세상을 냉소적으로 대하지 말고, 유희적으로 대하지 말라.
- 비관과 절망에 빠지지 말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때 모든 이에게 작은 공헌도 할 수 있는 것이다.
- 명예와 이익을 얻기 위해,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에게 해롭고 치명적인 것이다.
- 자신의 일에서 즐거움을 찾으며 생활함을 실천하라. “족함을 즐기라” “중용의도”를 지켜야 몸과 마음의 평형을 지킬 수 있고, 앞날을 밝게 보게 된다.
- 대자연과 조형예술을 많이 접하면 정신적,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모든 생물과 만물 앞에 겸손할 줄 알게 되어 나쁜 생각을 제거할 수 있다. — 좋은 심성을 기르는데 효과적이다.
- 자신의 결점을 최대한 감추려는 것은 본능이지만 현명한 일은 아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솔직함’이 가장 중요하다.
- 품성을 닦는 일은 열심히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사람됨을 가르치는 것은 무엇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을 전수하는 것은 사람됨을 가르치는 것보다 쉬운 것 같다.
- 새로운 사물, 외국의 문화를 모방하기보다는 재창조함이 마땅하며 새로운 문화의 창조는 완만한 투쟁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2. 예절교육을 위한 가르침들 :

- 태도 거동, 얼굴표정, 말과 웃음, 등의 예절은 인간사이에서 평생도움이 되는 중요한 것이므로 좋은 습성으로 길러야 한다.
- 태도가 진실 되면서 겸손하고 예절이 바르면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다.
- 말은 항상 조심하고, 윗사람과 얘기할 때 손을 바로 하고 몸은 꼴꿍이, 식사예절은 반드시 익히도록 하라.
- 일상생활 속에 작은 일들도 말끔하게 처리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라.
- 손을 옷웃주머니, 바지주머니에 넣는 버릇은 남과의 관계에서 버릇없이 보이므로 반드시 고치도록 해야한다.
- 사람을 사귀는 교제기간에는 선물을 최대한 적게 하고 돈도 적게 써서 물질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 관심 있게 도와주는 분들에게 소식전하는 예의를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한다.
- 규칙과 질서 지키는 일을 항상 기억하여라.
- 근면과 성실은 자기수양이고 예의이다. 꼭 실천토록 하라.

3. 시간 사용에 대한 가르침들 :

- 일의 선·후, 완급을 구별하여 충분히 활용해야 모든 일이 제대로 될 수 있으며 이것은 인생 길잡이의 기본이다.
- 많이 생각하고, 그 후에는 목표를 만들어 실행에 옮겨야 한다.
-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규칙을 세우고 실천

해야 한다.

- 너무 바쁜 생활을 삼가고, 감정, 체면에 이끌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일에 밀려 짜증남으로 시간의 안배를 여유 있게 잘 하도록 당부하고 가르친다.
- 일을 미루지 않도록 조정에 유의해야 한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몸으로 실제 행동으로 하는 것이므로 시간 활용에 유의해야 한다.
- 긴장을 너무하면 이익보다 해가 많으므로 아름다운 자연, 좋은 글을 접하는데 반드시 시간을 할애하면 좋을 것이다.
- 멀리 내다보는 여유와 심신의 평형을 유지하여 충분한 시간 속에서 다듬어 진 것이어야 헛되지 않은 법이다.

4. 조국애와 민족성에 대한 가르침들 :

- 멀리 이국 땅에 있어도 너를 낳아준 민족, 길러준 조국, 우리 문화를 잊지 않아야 한다.
- 무슨 일이 생기거나 적막할 때 조국의 위대한 시인들을 벗삼아 읽으면 따듯한 마음을 줄 것이다. (좋아하는 시인과 책을 추천함)
- 중국문화의 아름다움을 잊지 말고 재창조함이 조국과 동포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다.
- 자기 자신을 아끼는 것은 바로 조국을 중시하는 것이다.
- 한 사람의 기회와 즐거움은 많은 사람들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 너는 중국의 전례 없는 행운아이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도움은 행동으로 보답함을 잊지 말고,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 기본자세이다.
- 모국어 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기 또는 편지를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중국인의 이상은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고, 깨달음과 초월함에 있으며 서양인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편집과 열광 천당의 갈구와는 차이가 있음을 가르친다. / 또 중국인들은 도덕과 규범에 의하여 여러 세대 동안 질서와 문명사회를 유지하여 온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건전한 도덕적 가르침으로 자란 민족의 긍지와 사람됨을 자랑스럽게 전함으로서 정신적 승고함, 장엄함을 깨닫도록 가르친다. / 특히 중국의 전통과 문화적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청빈하지만 낙관적임을 가르치며, 중국인의 양면성 — 열렬하면서도 조용하고, 깊으면서도 소박하고, 온유하면서도 거만하고, 신비적이면서도 솔직한 마음 이것이 중국인의 고유한 노장정신(老莊精神)임을 가르쳤다.

V. 결론 및 시사

傅雷(1908~1966)는 당시 중국의 번역문학가로서 동·서양의 학문을 접하고 실제 생활을 경험한 아버지이다. 본 연구자는 이 편지모음을 통해서 가정관리학 전공자로서 가정환경과 인적자원의 계발, 특히 구체적인 가정교육 내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재조명해 보았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인간성 상실이 빚어내는 가정과 사회의 정신적 황폐와 갈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변화된 사회를 타하고 체념하거나 가정교육의 부재 특히 부(父)의 부재에 그 화살이 모아진 지도 오래되었다.

그런데 이들 부부의 가르침에서는 사회 문화적 정신세계의 특성과 함께 무엇보다 자식의 인간됨을 향한 진지하고 성실한 생각과 경험과 구체적 방법들을 가르치고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지혜를 진솔하게 전하고 있다.

특히 한 인간의 심신과 도덕적 훈련의 기초가 안정된 가정과 신뢰받는 부모 자녀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가장 보편적 진리를 굳게 믿고, 부모가 그 원칙을 신념 있게 적용하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이는 편협한 애정이나 과잉보호와는 다른 깨달음과 평온을 일깨워주고 자기위치에서의 처신과 행동을 알게 깨우치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됨을 인식하게 한다. 그리하여 안정된 가정 내 환경을 만들고 따뜻한 마음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책임을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부모가 자식의 교육을 위하여 무엇을 최대로 하려 하여, 어떠한 신념으로,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생활 철학과 가정적 삶을 공유하려고 노력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오늘날 많은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녀의 성장시기가 청소년기에 해당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큰 관심을 갖게 한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에서부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자긍심에 이르기까지 엄격함과 자상함을 고루 갖추고 자식의 인간적 계발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진실과 사랑을 담아 경험과 지식과 생각까지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우선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성의 함양을 위해 중점을 두는 것은 “이상적인 성격형성”이다. 그 성격이란 자신과 남을 이해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는 원숙한 성품을 닦는 것에 있다.

이들 부모의 경우에도 시종일관 이를 적용하여 실천을 강조한 지침들이 있으니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것, 참을성을 키우는 것, 온건함, 대인관계에서의 조화를 이루는 것, 긍정적 사고를 키우는 것, 감정 조절의 중요성, 정신적 위로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자연을 가까이하고 고전을 가까이 함을 가르쳤다. 이 같은 성품의 형성은 이성의 힘이고 가정교육을 통한 수련임을 실현하고 있다.

위의 내용들은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 어느 사회관계에서도 필요한 생활적 가치가 아닐까 생각한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 나타나는 무질서와 갈등과 자기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는 더욱 돋보이는 내용이다.

특히 자녀의 연령으로 미루어 정신적 세계 즉 “바람직함”에 대한 생각을 정비하고 재창조 할 수 있도록 생각의 중요성과 생각하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와 같이 다변화된 가치가 공존하고 가치의 전이가 불투명한 시점에서는 자칫 가치의 강요나 권위주의적인 교육이라고 생각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의 의사소통기법에서 또는 실천해 보이는 지혜 속에서 상호교류하며 터득해 가야 할 몫이고 그 내용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정교육적 영역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많이 생각하고 생각한 후

그 생각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실천하는 과정을 더 소중하게 평가하고 있음도 오늘의 성급한 사고와 교육방식에서 다시 생각해 하는 믿음이다.

다음으로 예절의 습관화를 세심하게 일러주고, 나아가 예절은 자신과 다른 사람사이에서 평생토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가르친다. 거동, 표정, 말과 웃음, 목소리, 남에 대한 배려, 식사예절 등 좋은 습성으로 길러가야 한다는 것을 함께 있는 듯이, 보는 듯이, 타이르고, 당부하고 조언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글로벌에티켓을 지향하면서 겸손하고 교양 있고 예의바른 세계인이 되는 길을 찾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그 모습은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예절은 가까운 생활에서의 실천이고 습관이며 나아가 개인과 사회의 문화임을 재인식하는 부모의 교육력 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하는 부분이다.

또한 그 당시 부모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간사용에 대한 철학과 테크닉을 가르쳤다는 사실이 놀랍다. 현재 가족생활이 많이 분산되어 있고 자녀가 떨어져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활용방법은 다르겠지만 시간사용의 소중함, 자신이 조정해야 하는 시간적 안배, 시간적 여유의 의미 등은 오늘날 더욱 요구되는 시(時)테크가 아닐까.

다음으로 청년기에 자칫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동, 서양 가치관의 차이를 인식시키고 자신의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재창조, 민족적 자존심, 조국애 등에 대해서 진실하게 전달하고 있음을 볼 때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부모의 혜안이 느껴진다. 자녀입장에서는 자

아존중감 내지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욱 늘어나고 있는 조기유학과 이민 가정을 생각해 볼 때 시사하는 바 크다.

오늘날 경제 가치가 많은 것을 지배하고 정보화가 시공을 초월하는 생활환경에서 더욱 퇴색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성 함양에 대한 열망이고 교육적 신념임을 깨닫고 재확인해 본다.

【참 고 문 헌】

- 1) 傅雷 작. 유명하 옮김(2001). 傅雷家書. 서울: 민음사.
- 2) 林語堂 작. 신해진 역(1995) 중국, 중국인 서울: 장락도서출판.
- 3) 강효백(2000). 차이니즈나이트. 서울: 한길사
- 4) 김희영 편저(1986). 이야기 중국사. 서울: 청아출판사.
- 5) 지영숙(1992). 가정교육의 현대적 과제(제 2보).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22집.
- 6) 지영숙(1998). 전통 가정교육사상의 현대적 의의 생활과학. 성균관대 생활과학연구소.
- 7) 지영숙(1989). 다산의 가정교육에 대한 현대적 의의. 성균관대 인문과학 연구소. 인문과학 19집.
- 8) 왕석순(1996). 아동기 가족의 가정교육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정원식(1995). 교육환경론. 교육출판사.
- 10) 조성숙(1995). 가족의 자녀교육.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